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9. 13 | 통권 제29호(2012-17) |

근거가 희박한 노동시간 단축의 시기상조론

[요약]

- 우리나라에서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여 제기되었던 시기상조론은, 법정노동시간을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에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다시 2004년부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성공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그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음.
-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시점에서 OECD 각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400시간, 많게는 600시간까지 짧았으며, OECD 주요 국가들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되기 전에 이미 연간 노동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줄이고 있었음.
-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아직 국민소득이 낮아서 줄이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음.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세 가지 사회적 논의

■ 노동시간 단축 시기상조론

- 법정노동시간 단축, 특히 주 40시간제 도입이 논의될 때 반대론자들의 중요한 논리가 노동시간 단축의 시기상조론이었음.
- 작년 말과 올 초에 제조업 등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유력한 법적 근거였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노동부 행정해석 근거 68207-2855, 2000. 9. 19)이 변경되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될 때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의 시기상조론이었음.
- 이번에 다시 출현한 시기상조론은 “우리 중소제조업이 자동차부품이나 금속제조업을 중심으로 간신히 잘 나가고 있는데, 자칫 노동시간 규제를 통해 현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나중에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느냐”며 위협을 섞어서 등장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 시기상조론의 요지는, 한국의 국민소득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도 낮고,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과 빠른 납기에 기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은 이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노동시간을 단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임.
-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기상조론이 갖

고 있는 맹점은, 법정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 충격과 비용 부담을 비교적 잘 극복해 왔는데, 이번에도 또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면서 “그럼 언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아무런 답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임.

■ 노동시간제도 후진국론

- 이런 시기상조론에 반대되는 논의가 노동시간제도 후진국론으로, ILO의 노동시간 전문가인 메신저(Messenger)는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해 “한국은 발전된 국가로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도드라진다. 보통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들은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다”(BBC, *New Magazine*, 2012. 5. 23)고 주장함.
- 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데 노동시간제도나 관행을 보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주장은 우리의 초과근로시간, 연간근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정당한 평가임.
-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외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 한국의 사회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의 지속불가능론

- 이와 차원을 달리하여 우리의 장시간 노

동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생애주기와의 부정합, 일과 생활의 불균형과 충돌 야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속불가능론도 있음.

- 이 논의에 따르면 우리의 장시간 노동제도는 생애주기의 측면에서 27~55세의 왕성한 노동을 하는 시기에는 장시간 노동을 활용하고, 55세를 전후한 시기에는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여 장년층이나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비정규 노동시장의 허드렛일자리로 내몰린다는 것임.
- 또한 우리의 장시간 노동제도는 전일제 고용을 강한 사회적 규범으로 하고 있어 자녀, 환자, 장애인을 가진 여성이나 남성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우리는 장시간 노동제도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직장이 근로자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 개인이나 가족의 여가, 삶 되돌아보기, 퇴직 준비, 지역사회 참여 등을 할 여유가 없음.
-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붕괴, 가족생활이 무시되는 저녁이 없는 사회, 피로사회, 직장을 잃으면 갑자기 퇴물이 되는 사회, 가정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회를 낳고 있음.
- 장시간 노동으로 얻은 경제성장, 외형적인 소득증가 속에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소중한 것들, 즉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근로자 개인 혹은 가족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부모와 자녀들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족관계 등을 잃었음.

■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의 재설계 필요

- 이제 장시간 노동체제 아래에서 직장 위주로 짜여진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가족, 직장, 지역사회 사이의 균형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이들 삼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재설계해야 할 때가 왔음.
-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는 것에 반대해 왔고 현재도 반대하고 있는 시기상조론의 근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기상조론과 관련된 근거

- 장시간 노동 단축에 반대하는 시기상조론은 먼저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은 한국의 소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임.
- 아직도 한국에서는 장시간 일을 해야 근로자들이 먹고살 수 있고, 국민경제 전체으로는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국제적으로 비교해 본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수준
 - 먼저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선진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OECD 통계를 갖고 살펴보고자 함.

- 명목임금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평균임금 수준은 2011년 29,053달러로 OECD 평균인 51,043달러의 56.9% 수준에 불과하지만, 명목임금 수준은 물가수준이나 환율에 따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표 1>에서 보듯이 2011년 현재 한국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 근로자보다 연평균 418시간을 더 일하면서 연간 평균임금 수준은 실질구매력지수로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임금의 79.1%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연간 평균임금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앞서고 있는 수준으로 한국 근로자들의 실질

적인 연간 평균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OECD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간 단축의 궤적
 - OECD 주요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노동시간을 언제, 얼마만큼 줄여왔는지 1970~1999년까지 한국과 비교하여 그 궤적을 살펴보기로 함.
 - [그림 1]에서 보듯이 OECD국가 중 한국을 제외하고 스페인과 일본만이 1970년대 초에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1,950시간대 미만이었음.
 - 1980년에 이르러 일본, 스페인, 헝가리를 제외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미국이

<표 1> 연간 노동시간과 연간 평균임금 수준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			2011년 근로자 연간 평균임금(미국달러 실질구매력지수 PPPs)			
	2000	2010	2011	2000	2009	2010	2011
호 주	1,780	1,686	1,693	38,258	41,856	42,550	44,983
벨기에	1,545	1,551	1,577	41,585	43,561	43,023	44,364
캐나다	1,775	1,702	1,702	35,698	41,517	41,961	42,253
덴마크	1,581	1,542	1,522	37,010	42,904	43,190	45,560
프랑스	1,591	1,562	1,475	34,194	37,807	38,124	38,128
독 일	1,473	1,419	1,413	37,695	38,251	38,325	40,223
이탈리아	1,861	1,778	1,774	31,920	32,406	32,657	33,517
일 본	1,821	1,733	1,728	33,133	33,219	33,900	35,143
한 국	2,512	2,193	2,193	26,870	31,733	33,221	35,406
네덜란드	1,435	1,377	1,379	41,541	45,832	45,671	47,056
스페인	1,731	1,663	1,690	31,720	33,908	33,656	34,387
스웨덴	1,642	1,624	1,644	31,828	36,766	36,826	37,734
스위스	1,688	1,632	-	45,276	50,155	49,810	50,242
영 국	1,700	1,647	1,625	40,541	44,899	44,008	44,743
미 국	1,836	1,778	1,787	49,981	52,256	52,607	54,450
OECD 전체	1,818	1,749	1,775	-	-	43,933	44,757

주 : OECD Weighted Average.
 자료 : 2000, 2010년 통계는 OECD Database, 2011년 통계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1,900시간, 다른 나라들은 1,800시간,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1,600시간대로 줄어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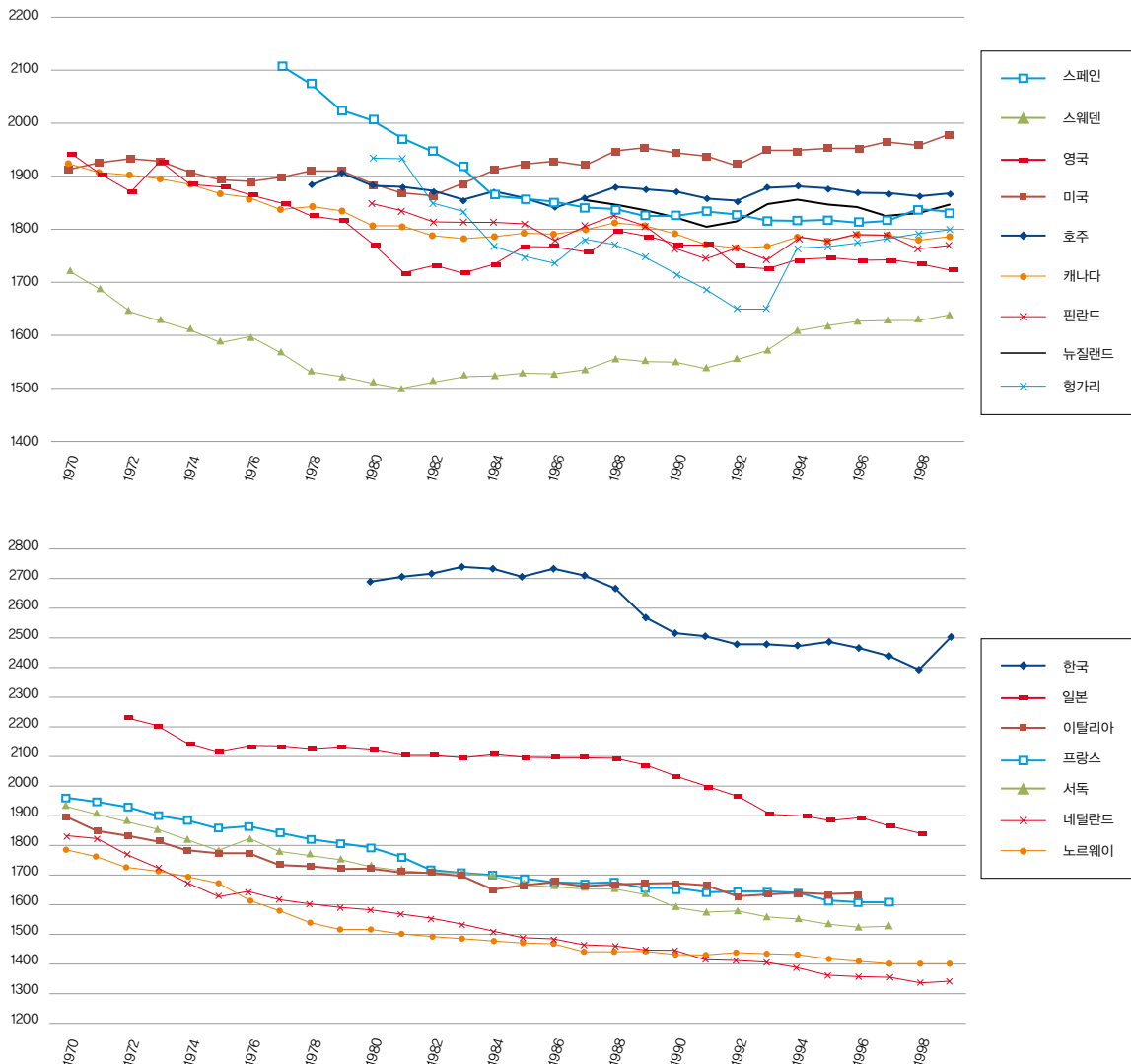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로 노동시간 규제가 아주 약한 미국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1980년 보다 약 100시간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짧은 그룹인 네덜란드나 노

르웨이는 1,400시간대,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은 1,500~1,600시간대, 영국, 스페인, 일본, 호주 등은 1,700~1,800시간대에 머물렀음.

- 1990년 후반 기준 연간 노동시간에서 한국만이 2,400~2,500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 연간 평균노동시간(1970~1999년)

(단위: 시간)



자료: Evans, John, D. C. Lippoldt and P. Marianna(2001), "Trends in Working Hours in OECD Countri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45, OECD.

- OECD 주요 국가들의 시기별 노동시간 단축
 - OECD 주요 국가들은 1975~1982년 사이에 대부분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10%p 이상 줄였음(표 2 참조).
 - 다만 1983~1994년 사이에 시간제 고용을 급격히 늘린 네덜란드에서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12.9%p 줄였고, 1980년대 이래 산별노조의 주도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벌인 서독은 13.9%p 줄였으며, 일본은 뒤늦게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1983~1994년 사이에 17.9%p, 1994~1998년 사이에 14.0%p를 줄였음.
 - 이들 주요 국가에서 1989~1999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간 평균 노동시간의 단축은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고용의 확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1988년까지 이루어진 전일제 고용의 노동시간 단축과 대조됨.
- OECD 주요국들의 1인당 GDP 2만 달러 달

성 시점

- <표 3>에서 보듯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미국은 1969~1970년, 일본은 1979~1984년, 영국은 1976~1986년, 프랑스는 1974~1979년, 독일은 1977~1979년, 이탈리아는 1980~1985년, 네덜란드는 1971~1974년, 스웨덴은 1969~1979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달성했음.
- 한국은 OECD 기준으로는 2002년, 다른 통계로는 2010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을 앞의 [그림 1]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1970~1980년 초반 사이에 OECD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이들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950시간에서 1,700~1,800시간으로 줄어들었음.
-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이미 1900시간 이하로 줄어든 상

<표 2> 주요 선진국의 시기별 연간 평균 노동시간 단축 비율

(단위: %p)

	연도	단축 비율	연도	단축 비율	연도	단축 비율
캐나다	1975~82	-12.2	1982~91	-1.8	1991~97	1.2
프랑스	1975~85	-17.5	1985~93	-5.4	1993~98	-7.6
이탈리아	1975~83	-9.3	1983~93	-3.7	1993~99	-
일본	1975~83	-2.1	1983~94	-17.9	1994~98	-14.0
네덜란드	1975~83	-12.1	1983~94	-12.9	1994~99	-9.0
노르웨이	1978~83	-10.4	1984~93	-7.2	1991~99	-4.0
스페인	1975~84	-	1984~93	-5.6	1993~99	1.9
스웨덴	1978~83	-1.9	1983~93	5.0	1993~99	11.1
영국	1975~82	-21.8	1982~92	0.2	1992~99	-1.3
미국	1975~82	-3.9	1982~91	8.2	1991~99	5.0
서독	1975~82	-10.0	1982~93	-13.9	1993~99	-3.9

자료: Evans, John, D. C. Lippoldt and P. Marianna(2001), "Trends in Working Hours in OECD Countries", OECD Labour Market &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45, OECD, p.23.

〈표 3〉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시점

	한국	주요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1인당 소득 ¹⁾ (달성 시점)	20,922 (2010)	21,145 (1969)	20,240 (1979)	20,090 (1976)	20,443 (1974)	20,597 (1977)	20,343 (1980)	20,392 (1971)	20,646 (1969)
1인당 소득 ²⁾ (달성 시점)	20,597 (2002)	20,544 (1970)	20,072 (1984)	20,009 (1986)	20,065 (1979)	20,619 (1979)	20,395 (1985)	20,187 (1974)	20,061 (1979)

주: 1) US 달러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함.

주: 2) GDP Per head, 2005년 US 달러, 불변가격, 불변구매력지수(constant PPPs)로 계산.

자료: 위의 통계는 USDA ER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Data Set에서, 아래의 통계는 OECD(2012),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559#> G에서 가져옴.

황에서 1인당 GDP 2만 달러 시대를 맞았고, 〈표 3〉에서 보듯이 1인당 GDP 2만 달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이른 2002년에는 2,400시간대이고, 2010년에는 여전히 2,200시간에 이르고 있음.
- 이런 점에서 국민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시점에서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적게는 400~500시간, 많게는 500~600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음.

결론

- 우리나라에서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여 제기되었던 시기상조론은 그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음.
- 법정노동시간을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서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2004년부터는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성공적으로 단축하는 것

은 물론 법정노동시간 단축 이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같은 시점의 OECD 각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최소한 400시간, 많게는 600시간까지 길었음.
-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되기 전에 OECD 주요 국가들은 연간 노동시간을 이미 1,900시간 이하로 줄이고 있었음.
-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아직 국민소득이 낮아서 줄이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음.
-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의 한계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인력의 고용을 최소화하고 고용한 인력을 장시간 일하도록 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의 단축을 통해서 저임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한계산업의 적절한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빠른 산업화로 저임금 경쟁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생산이나 사회시스템에서 질적인 격차를 만들어야 우리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음.
-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노동시간 단축의 노력을 막을 때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바로 실천해야 할 시점임.
- 다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지금부터 노동시간을 줄이되 5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Evans, John, D. C. Lippoldt and P. Marianna(2001), "Trends in Working Hours in OECD Countri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45, OECD.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s, ER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Data Set, Real Per Capita Income (2005 dollars) Historical, <http://www.ers.usda.gov/data-products/international-macroeconomic-data-set.aspx>
- OECD(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 OECD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aekiusik@kli.re.kr / 02-3775-5524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를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